



“더 강하고 단단해진 우리 모습에 스스로 놀란다” ‘파업 한 달 콘서트’ 성황리 열려



노라조가 차례로 나와 열정적인 무대를 꾸몄다. 노라조는 대표곡 ‘슈퍼맨’에 공정보도 구호를 넣어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영화감독 변영주 씨는 연대사에서 “기사 하나가 세상을 바꾼 적이 많다. 그래서 2012년 대한민국에서 연합뉴스의 파업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잘 알고 있다”며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콘서트를 지켜본 시민 나지현(26)씨는 “공연도 좋았지만 파업 한 달이 넘도록 활기를 잃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더 감동적이었다. 파업을 잘 마무리해서 좋은 기사를 써주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을 넘긴 연합뉴스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회사 역사상 가장 긴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출정식 때와 다름 없이 활기찬 모습을 보이며 박정찬 사장 연임에 반대하는 의지를 다졌다.

18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센터원 앞 한빛공원에서 노조 주최로 열린 ‘파업 한 달 콘서트’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집회나 공연을 열 때마다 차가운 봄비 탓에 몸을 움츠려야 했던 조합원들은 이날 모처럼 개인 하늘에 콘서트 전부터 밝은 표정을 보였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지만 해가 진 후에도 춥지 않아 야외 문화제에 알맞은 날씨였다.

콘서트는 조합원 공연과 외부 초청 가수 공연으로 크게 나뉘었다. MC로 함께 입을 맞춘 안화·김혜영 조합원은 수많은 관객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

고 매끄러운 진행을 선보여 “기자 같지 않게 끼가 넘친다”는 시민들의 찬사를 들었다. 첫 순서는 공병설 위원장이 열었다.

공 위원장은 정장을 차려입고 시민들앞에 서서 그동안의 불공정보도에 여러차례 사과하고 파업을 성공적으로 끝내 진정한 국가기간통신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사실상 첫 파업이라 남들보다 힘들었고 걱정도 많이했다. 하지만 기우였다. 한 달을 넘긴 지금, 처음보다 더 강해지고 단단해진 모습에 스스로 놀란다”며 부끄럽지 않은 회사를 만들고자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뉴스 노래패 ‘곰창단’의 데뷔 무대가 펼쳐졌다. 흰 셔츠와 청바지를 맞춰 입은 9명의 조합원들은 민중가요 ‘사계’를 아카펠라로 불렀다. 짧은 연습기간이 무색하게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노래패 이름답게 ‘졸깃한’

화음을 만들어내 청중의 귀를 쥐락펴락했다.

공평동 호랭이 밴드의 공연은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다. 전날 피나는 연습 대신 족발에 소주를 마시며 팀워크를 다졌다는 이들 밴드는 기성 가수 뺀치는 숨은 실력을 드러내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공평동 호랭이’로 알려진 박지호 조합원은 문화제 음향을 총괄하는 등 1인 다역을 맡아 숨은 일꾼을 자처했다.

이날 단연 인기를 끈 것은 ‘춘사마 차력단’이었다. 강훈상 조합원을 단장으로 3명의 사범들은 러닝셔츠에 빨간 반바지, 검은 레깅스를 갖춰 입고 나와 맥주병 깨기, 입으로 ‘중형 승용차’ 끌기, 달걀판 위 걷기 등 기대를 뛰어넘는 본격 차력을 선보였다.

초청가수 공연이 이어지자 한빛공원은 불어난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꽃다지, DJ DOC, MC스나이퍼,



“불가능을 가능으로...차력이 곧 파업 정신”

춘사마 차력단 데뷔 무대 환호로 열광



사상 최초의 언론인 차력단, ‘춘사마 차력단’이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치렀다. 차력쇼를 본 많은 조합원들이 후속공연을 기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 TV파견 강훈상 조합원과 정치부 강영두·김호준 조합원, 북한부 노재현 조합원으로 구성된 ‘춘사마 차력단’은 18일 파업 콘서트에서 첫 공연을 펼쳐 조합원과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맥주병 깨기, 각목격파, 다리털 뽑기, 엉덩이로 나무젓가락 꺾기 등 10여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들의 공연은 이날 문화제의 하이라이트로 손색이 없었다.

이들은 검은색 타이즈에 빨간색 사각팬티, 흰색 여성용 스판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해 직접 ‘무한의 능력’을 보여줬다.

농구공 위에 올라서서 저글링을 선보이는가 하면 스타킹을 머리에 쓰고 찢기, 엉덩이로 나무젓가락 부러트리기 등 그간 숨겨왔던 ‘괴력’을 과시했다. “파이파이! 따~이!” 기합소리가 공연 내내 무대를 달궜다. 정치부 김범현·김남권, 사회부 김연정 조합원이 공연도우미로 나섰다.

☞ 1면에 이어

공연엔 맥주병과 각목, 랩이 들어간 액자, 계란 5판 등 다양한 소품이 동원됐다. 수십만원에 달하는 재료비는 단원들의 사비로 충당했다.

특히 격파에 쓰인 맥주병은 단원의 안전과 극적 효과를 높이고자 설탕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원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놀라운 점은 이들의 실제 연습기간이 공연 당일 하루에 불과했다는 것. 짧은 연습에도 숨어 있던 '신공'은 만만치 않았다.

노재현 조합원이 계란 위 걸기를 했을 때 예상과 달리 계란이 깨지지 않아 단원들이 순간 당황해하기도 했다.

노 조합원은 "계란 150개 중 멸정한 게 100개도 넘는다"면서 "노조원들과 같이 살아 먹으려 했는데 공연 끝나고

나니 없어졌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나"면서 계란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레깅스를 비롯한 소품 처리도 고민이다. 한 조합원은 "땀이 뻘 채로 다음번 파업 바자 때 내놓을 생각"이라면서 "라지 크기이므로 체격이 우람한 여성 조합원이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념으로 고이 간직하겠다"는 조합원도 있었다.

이들은 공연 후 청계천변에서 맥주잔을 기울이며 첫 공연 성공을 자축했다. 이들은 "우리의 능력을 다 보여주기에 무대나 장치가 너무나 소박했다"면서 "여성 단원을 추가 모집해 파업 승리 시 '승리기념' 공연을 선보이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특유의 긴장된 표정과 절박한 기합 소리로 주목을 받은 노재현 조합원은 "아내가 연기는 좀 부족했지만 충분히 코믹했다고 칭찬해줬다"고 자랑했다.

파업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파업체조단'의 리더 격인 김혜영 조합원은 "차력단의 인기에 위기를 느낀다"며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강훈상 조합원은 "휴식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의 정체성 고민(?)에 들어갔다. 부인과 외동딸, 장모님까지 직접 공연장을 찾았다는 강영두 조합원은 "가족들은 공연 관람 후 말없이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며 고개를 저었다.

강훈상 조합원은 "차력은 속임수가 아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면서 "우리의 파업 정신과도 맞닿아있다"고 설명했다.

강 조합원은 "박정찬 사장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기사를 잘 쓴다'는 4명의 기자가 왜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차력에 나섰는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상의 하모니 아카펠라 그룹 '곱창단'



"뚝뚝뚝 뚝뚝뚝뚝~", "빨간꽃 노란꽃 꽃밭 가득 피어도~", "뽐뽐뽐뽐 뽐뽐~"

아카펠라 그룹 '곱창단'이 18일 열린 연합뉴스 파업 콘서트 첫 무대를 '천상의 하모니'로 장식했다.

조합원 9명으로 구성된 혼성 아카펠라 그룹인 곱창단은 이날 조합원 공연 순서로는 가장 먼저 무대에 올라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곡 '사계'를 부르며 한빛광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관객들은 데뷔 무대인 만큼 긴장한 얼굴로 무대에 선 단원들을 보며 이들의 실력을 반신반의했지만, '사계'가 다섯 파트로 나뉘어 혼성 화음으로 아름답게 울려퍼지자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며 흥겨워했다.

곱창단은 다소 칙칙한 색깔의 회사 작업점퍼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목 풀기 곡'을 짧게 선보이고서 점퍼를 벗어 던지고 흰색 유니폼으로 '변신'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계'는 조미나·배영경 조합원이 소프라노와 알토를 맡아 아름다운 화음으로 멜로디라인을 이끌었고, 백중현·백나리·이용석 조합원이 테너를 맡아 엇박꾸밈음으로 노래를 '맛깔나게' 만들었다.

베이스를 맡은 최동우·전재권·김동규 조합원은 든든한 저음으로 화음을 받쳐주며 노래의 전체적인 중심을 잡아줬고 입으로 효과음을 내며 박자를 잡아준 김동욱 조합원의 소리까지 더해져 '천상

의 화음'이 탄생했다.

9명의 목소리만으로 어떤 악기보다도 아름답고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창단 후 닷새 동안 '피나는 연습'의 결과였다.

백중현 단장을 중심으로 9명의 단원은 종로 일대 노래방을 연습장으로 삼아 하루 4시간 이상의 맹훈련을 강행했고 화음을 하나하나 맞춰나갔다.

곱창단 연습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봤던 한 조합원은 "연습 초기엔 곱창단이 과연 무대나 오를 수 있을지 걱정되는 수준이었지만, 오늘 정말 훌륭한 공연을 선보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회부 김연정 조합원은 "소리가 들을수록 정말 '졸깃졸깃' 하고 화음이 아름다웠다"면서 "앙코르가 없어서 참 아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연 당일엔 혹시 소리를 내는데 무리가 있을까 저녁 식사를 거른 단원도 있었고, 집에서 길에서 시간 날 때마다 자신의 파트를 흥얼거리며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의 뜨거운 앙코르 요청이 있었지만, 미처 준비한 곡이 없어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백중현 단장은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입을 환영한다"며 "단원이 많이 모이면 회사 정식 동아리로 등록해 활동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구호 세 번 외치고 헤어져라" 최고 망언으로 꼽혀

연합뉴스 파업 문화제에서 부대행사로 박정찬 사장의 최고 망언을 뽑는 앙케트가 진행됐다. 박 사장의 망언을 적어놓은 표지판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의 투표에 시민 150여 명이 참여했다.

최고 망언으로는 앙케트 참가자 27%의 표를 받은 "구호 세 번 외치고 헤어져라"가 뽑혔다. 출근 저지투쟁 첫 날이었던 지난 3월26일 침통한 마음으로 사장실 앞에 모여 있던 조합원들에게 박 사장이 던진 말이다.

인근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박성호(38) 씨는 "그간 연합뉴스가 파업하는지 몰랐는데 사장의 발언을 보니 심각한 것 같다"며 "직원들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MBC 김재철 사장을 포함해 언론사 사장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망언을 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며 안타까

움을 드러냈다.

2위 망언으로는 18%의 득표를 얻은 "세 시간 반 동안 참고 있었다니 오죽이 마렵다"가 뽑혔다. 지난 2011년 12월 변화를 갈망하는 사원들과의 대화를 마치고서 박 사장이 던진 한 마디다. "밖에서는 날 바보라고 한다"와 "지금 나가라는 거요, 뭐요?"가 각각 16.5%와 16%의 근소한 차이로 3위, 4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지난 3월 열린 조합원 총회에 등장한 박 사장의 발언인 "제가 떠날 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아도 떠날 겁니다"가 13%의 표를 받았다. 출근 저지 투쟁을 하는 조합원들에게 길이 막히자 "(내가) 간다고 하면 갔다가 올 수 있는가? 몇 시에 올까?"라는 농담성의 발언이 6위에 올랐다.

‘피로 쓴다’ 연합뉴스 싱어송라이터 등장

“너의 곁은 소리로 사람의 소리로/ 단단한 권력의 어두운 심장을 뚫어라”

18일 저녁 연합뉴스 파업 한달 맞이 콘서트에서 ‘공평동 호랭이’ 밴드 일원으로 나온 사회부 이상현 조합원은 자작곡 ‘피로 쓴다(공정보도쟁취가)’를 목청껏 불러 광장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지난달 23일 서울역 전국언론노조 총궐기대회에서 폭발적인 응원을 선보여 타사 언론인들을 압도한 이 조합원은 이날 공연에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맨 앞자리에 앉아 노래를 경청한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공병설 위원장에게 “노래가 정말 좋다”고 말하며 손을 들어 연신 손뼉을 쳤다.

이 조합원이 손수 작사·작곡한 이 노래는 지난달 12일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 조합원이

자신의 녹음기와 마이크, 아이패드를 총동원해 가내 수공업으로 이틀만에 완성했다.

MBC·KBS·YTN 노조가 윤도현 밴드의 ‘흰수염 고래’를 함께 부르며 파업 주제곡으로 내세운 적은 있지만, 조합원이 파업을 맞아 직접 노래를 창작한 것은 이 조합원의 ‘피로 쓴다’가 유일하다시피 한다.

이 조합원은 “총회에서 23년 만에 파업을 결의한 감격을 어떤 형식으로든 표현하고 싶었다”며 “노동조합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심장을 뚫는다’든지 ‘피로 쓴다’든지 가사가 다소 과격해보인다는 지적에 관해 그는 “노랫가락을 서정적으로 한 대신에 가사를 강하게 썼다. 투쟁에 힘을 실어주려는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속곡을 쓰기 전에 파업 사태가 옳은 방향으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에게 안희 있다... 간판 MC 부상



파업 돌입 후 각종 집회와 기금모금 바자회, 콘서트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휘어잡는 조합원이 있다. 이번 파업 문화제를 통해 ‘연합뉴스 간판 MC’로 등극한 안희 조합원이다.

파업 출정식 때부터 사회를 보기 시작한 안희 조합원의 진행 능력은 지난 한 달간 발전을 거듭했다.

파업 콘서트에 참석한 한 KBS 새노조 조합원은 “사회를 보는 분이 기자가 맞느냐”며 매끄러운 진행에 감탄하기도 했다.

안희 조합원이 MC계에 입문한 것은 지난 2003년 사회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회부 회식 자리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안희 조합원의 진행을 지켜봤던 동료들이 이번 파업 현장 MC로 적극 추천했다.

학창 시절 관련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안희 조합원은 자연스러움과 넘치지 않는 애드립으로 MC로서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문화제에서 함께 사회를 본 김혜영 조합원은 “나는 아마추어라 그런지 짜인 틀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희 선배의 사회는 틀이 없어서 더 생동감이 넘쳤다”

고 평했다.

안희 조합원은 지난 1차 바자 사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였다고 꼽았다. 조합원들이 예상 밖의 물건을 가져와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재미를 선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출정식 행사를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진다고 했다. “출정식 마지막에 ‘연합뉴스 노조 OO부 오셨습니까!’라고 외치며 출석체크를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장엄한 분위기로 마무리하려 했는데 미디어 과학부, 스포츠레저부 등 몇개 부서가 빠지는 바람에 실패했죠”라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안희 조합원은 “파업이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며 “이 국면이 정리되고 회사가 양금 없이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소망을 밝혔다.

콘서트를 뜨겁게 달군 초청 무대

“파업이라고 꼭 우울할 필요 없잖아요?”

‘파업 초짜’들이 준비한 좁은 무대와 열악한 음향 시설에도 꽃다지와 DJ DOC, MC 스나이퍼, 노라조 등 초청가수들은 짝 찬 무대로 문화제를 뜨겁게 달궜다.

가수들은 “이렇게 축제 같은 파업은 처음”이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연합뉴스 노조원과 시민들은 환호로 답했다.

민중가요 그룹 ‘꽃다지’는 “노조원 얼굴이 밝아서 보기 좋았다”면서 “다음달 콘서트에 연합뉴스 노조원이 온다면 할인해 드리겠다”고 공언했다.



DJ DOC의 멤버 김창렬은 “직전 공연은 MBC 파업 현장이었다. 이리다 파업전문 가수가 되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하늘은 “이렇게 비장함과 긴장감 없는 파업은 처음”이라며 농담을 던졌고, 정재용은 “모쪼록 파업 문화가 ‘ 좋게’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이들의 열광적인 무대는 지나던 시민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았다. 양복 차림에 서류가방을 멘 직장인도, 학원 강의를 마치고 나오던 대학생도 함께 손을 흔들고 어깨를 들썩였다.

무대를 이어받아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봄이여 오라’를 부른 MC 스나이퍼는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꼭 봄이 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앙코르 요청에 “당신들의 투쟁이 당신들의 인생에 무엇의 선택권을 줄지는 몰라도, 끝까지 끝까지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즉석 랩으



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이 마냥 노래하고 춤만 춘 것은 아니었다.

특히 노라조의 조빈은 치밀한 사전조사로 연합뉴스 파업 상황 전반에 대한 배경지식을 뽐냈고, 메시지 분명한 노랫말로 호응을 얻었다.

그는 “연합뉴스가 모든 언론사에 기사를 제공하

“연합뉴스 파업 지지합니다”…각계 인사 성원 줄이어

“여러분 놀라 멋있다!”

연합뉴스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18일 파업 한달 맞이 콘서트가 열리는 한빛공원을 찾은 변영주 감독은 분명하고 간결한 이 같은 한마디로 연합뉴스 조합원에 힘을 보탤다. 객석에선 박수로 화답했다.



“힘내라는 말이 같잖을 수 있어서 무슨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며 말문을 연 변 감독은 “파업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안다”며 위로했다.

평단과 관객 모두로부터 호평을 받은 ‘화차’를 감독한 변 감독은 “영화인은 2시간 남짓 위안을 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뿐, 영화가 세상을 바꾼 적은 없다”면서 “하지만 하나의 기사가 세상을 바꾼 적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처럼 서울 곳곳에 텐트가 쳐지고 경찰과 첨예하게 대립한 적이 없다”면서 “연합뉴스 기자들이 파업을 마치고 일터로 돌아가 기사로써 그들을 지지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인사들도 영상을 통해 지지 발언을 보내왔다.

“빨리 해결돼서 안 만나야 하는데…또 본다”며 운을 떼 웃음을 자아낸 방송인 김미화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긴 싸움이 될 테니 힘내라”라고 응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공정보도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면서 “헌법 정신을 고양하는데 언론 종사자의 역할이 크다. 파업에서 승리해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바란다”며 격려했다.



방송인 권해효 씨는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나고 재미있게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씨는 “우리 시대 최고의 연대는 ‘입금’”이라며 “시민 여러분 노조에 입금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3면에 이어



지 않느냐. 고객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 보자는 취지에서 노래 부르겠다”면서 히트곡 ‘판매왕’을 불렀다.

판매왕은 “고객이 원한다, 우리를 원한다, 어디든 쌍수 들고 달려간다, 고객만족 감동 서비스 우린 판매왕”이란 가사로 연합뉴스 조합원의 ‘초심’을 자극했다.

그는 “주최 측에서 무대나 음향이 열악해 자꾸만 미안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멀리가는 소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또 ‘쪽방촌 기자’ 차지연 조합원의 ‘연합 찌라시가 되기 싫다’는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파업은 지구력 싸움”이라면서 “지칠 때 또 불러달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며 격려했다.

조합원 · 시민 어울림 마당이 된 파업 문화제

한층 따뜻해진 봄날 밤에 열린 연합뉴스 파업 문화제에 연합뉴스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과 시민, KBS 새노조 등 파업 동지들이 참여해 한바탕 잔치를 벌였다. 오후 6시30분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인파는 초청가수인 DJ DOC가 등장할 때 최고조를 이뤘다. 700여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몸을 흔들며 문화제를 즐겼다.

회사원 이재용(28) 씨는 “문화제에 참여해 보니 그간 느끼지 못했던 노조의 절박함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더 많은 사람이 연합뉴스 파업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회사원 이도현(30)씨도 “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사측의 독단적 결정이 아쉽다”며 “시민들이 연합뉴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마련된 좌석 맨 뒷자리에는 꽃다지의 노래에 맞춰 열심히 손뼉을 치는 60대 여성들이 있었다. KBS, MBC, YTN 등 언론사 파업 현장에 빠지지 않고 다닌다는 일명 ‘김 어머니들’이다. 그 어떤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고 뜻이 맞는 60대주부 10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1년간 YTN 파업 현장을 꾸준히 지지방문했다. ‘김 어머니들’의 한 회원은 “언론이 죽으면 국민이 무식해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언론사 파업”이라는 정말 큰 문제가 묻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파업 44일을 맞은 KBS 새노조의 박진석 조합원

은 “방송사 외의 언론사 파업 현장은 처음인데 분위기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파업이 길어지면 사측에 대한 원망을 서로에게 돌리기가 쉽다는데 연합뉴스도 KBS도 이렇게 느긋하고 즐겁게 파업하면서 내부 분열을 경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드라마국 선후배와 함께 문화제를 찾은 KBS 새노조 김민경 조합원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여러 회사가 대체 근로 인력을 마련하고 있는데, 서로 위장취업을 해서 입사하자마자 그 회사 파업에 동참하자”는 ‘복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화제에는 조합원을 응원하는 가족들의 지지 방문도 빠지지 않았다. 정치부 이귀원 조합원의 무릎에 앉아 콘서트를 즐긴 딸 이하나(9) 양은 “파업하신다는 말을 듣고 아빠 회사에 와보고 싶었다”고 기뻐했다.

이양은 “아빠가 이전보다 시간이 많아져서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공원에 산책도 간다”며 “파업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빠가 회사로 복귀하시는 건 싫다”고 투정(?)을 부렸다.

수습 신분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3기 사원들도 삼삼오오 문화제를 찾았다. 한 수습기자는 “파업 중 혼자 현장에 떨어져 있어 외로웠다”며 “선배들이 보고 싶어서 문화제에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습기자는 “얼마 전 인터뷰를 거절하던 시민이 요새 파업하고 있죠? 고생이 많네요”라며 인터뷰에 응해줬다”면서 “선배들의 파업이 결실을 보면 후배들이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당당하게 취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응원했다.

